

2023. 7. 14.(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7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담당관

천주환

2133-8680

가족정책팀장

박경길

2133-8681

(나만의 결혼식)

담 당 자

한수경

2133-8683

(신혼부부학교 운영)

담 당 자

박미진

2133-8684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2133-701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2133-7048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9매

담 당 자

선헌림

2133-7026

서울시, 신혼부부 최대 고민 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4년간 4,878억 투입

-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차지원(3.6%→4.0%) 확대, 최대 10년까지 지원
- 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하객 1,000명 가능 시설도 확보...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 오 시장, 신혼부부 직원 간담회서 “집 문제로 결혼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방안 고민”

“저희 부부는 지난달 결혼식을 올리고 직장이 있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모든 돈만으로는 신혼집을 구하기 충분치 않던 차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구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내고 있어 부담도 크게 덜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면 지금 보다 돈이 더 들텐데 이차지원 혜택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서울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집값이 1%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¹⁾가 있을 정도로,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실제로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천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²⁾
-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차지원 확대 ②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③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이다. 4년간 총 4,878억원을 투입한다.

※ 통계청 기준 혼인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추계	계
서울시	53,776	52,005	48,261	44,746	37,012	35,752	35,752	307,304
전국	264,455	257,622	239,159	213,502	192,507	191,690	191,690	1,550,625

※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합계	487,753	99,253	123,800	131,050	133,650
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485,751	99,151	123,200	130,400	133,000
②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933	33	400	250	250
③ (예비)신혼부부 학교 운영	1,069	69	200	400	400

1)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2.12.28.)

2) 전국 기준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89.1%이며,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5,300만 원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2021)

<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2억→3억), 이자지원(3.6%→4.0%) 확대>

- 첫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대출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이자지원도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 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대상이다.

-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7,32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②공공예식장 총 24개소로, 수용인원 1천 명으로 확대·온라인 예약시스템 오픈>

- 둘째,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결혼식 수요로 예식장 잡기 어려운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매력있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은 북서울꿈의숲, 서울시청사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서,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지난 6월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고풍스러운 한옥을 배경으로 MZ 커플이, 광나루 장미원에서는 다문화 2커플이, 예향재에서는 한국인-외국인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연말까지 20건의 결혼식이 예약돼 있다.
-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서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 시민안전체험관, 시청 시민청 및 다목적홀, 한강공원 물빛무대 등은 100명, 서울시립대 자작마루,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재단 국제회의장, 평화울림터, 문화비축기지는 200명, 북서울꿈의숲은 300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숲속무대는 1,000명까지 수용가능하다.
- **신청도 편해졌다. 지난 5월 오픈한 온라인 예약상담시스템 (<https://familyseoul.or.kr/wedding>) 또는 상담전화(☎1899-215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픈채팅방을 통해 결혼전문업체와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 **복잡한 준비과정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주저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기획부터 예식까지 경험이 풍부한 협력업체가 함께하여 편리하게 준비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③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지원 ‘신혼부부학교’ 운영

-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심리상담부터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지원하는 ‘신혼부부학교’를 새롭게 운영한다.

-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초기에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등을 배우는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관계를 점검하고 심층 상담을 해주는 ‘신혼생활 컨설팅’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경제를 돕는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가족센터 대표전화(☎ 02-318-0227)나, 거주지 가까운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문의·신청하면 된다.
 - 이중 ‘예비·신혼부부 교실’ 프로그램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연중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혼부부학교’는 현재 5개 자치구(강북, 도봉, 동작, 서초, 송파)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월)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오세훈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



0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차지원 확대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전월세)의 대출이자 지원
-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 대출이자 최대 연 4.0%, 최장 10년까지 지원

신청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02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공공예식장소 : 북서울꿈의숲, 예향재, 서울시청사 등 총 24개소 오픈

신청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wedding>)

03

(예비)신혼부부 학교 운영



예비·신혼부부 교실 부부로서의 준비, 배우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

신혼생활 컨설팅 부부관계 점검, 심층 상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 체계적인 자산형성, 경제적 자립

신청 서울시가족센터(☎02-318-0227), 거주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 신혼부부 공무원 4커플과 대화를 나누는 오세훈 시장



